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실망스러운 산업행정 개혁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새로 출범한지 보름남짓 지난 것같다.
한달이 채 안되었으니 공과를 따져 잘잘못을 가릴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실망스러운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회운영이 그렇고, 행정조직 개편이나 관료 인선이 그러하다. 개혁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정성과 정체성에 비중을 두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양태를 보이고 있다. 「과격하다」는 국민일반의 시선이 이미 한물 건너간 상태에서, 그것도 IMF라는 미증유의 국난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안정을 중시하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다.
개혁과 안정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한쪽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그래서 치우치거나 지나쳐서는 아니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양쪽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 · 경제가 매우 안정된 선진국이라면 모르되,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안정된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심하게 요동치는 국가에서는 양자의 균형적 절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인지 확실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나, 행정조직 개편이나 장차관 인선에서는 개혁과는 거리가 한창 멀다고 보여지는 「구태의연한」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을 보아도 형식적으로 3~4개 부서를 통폐합하고 개혁의 주체로 몇개를 신설하는 정도에 그쳐, 국민일반이 기대하는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개혁의 초점을 경제와 재벌에 국한시키는 꼴로 비치고 있으며, 행정개혁은 말로 끝나는 형국이지 그 이상의 어떠한 기대를 갖게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차관 인사에서도 정치적인 고려에 비중을 둔 나머지 개혁과 전문성이 약한 내각을 인선한 감이 없지 않다. 장관급을 정치인으로 인선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차관급을 승진 위주로 기용한 것은 반개혁적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시대적 인물의 나열에 그친 인상이다.
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나머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가 상당수 기용됐으며, 정치 · 경제 피폐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서울대 출신 관료층을 재기용 또는 승진기용한 것은 앞으로의 개혁에 있어 험난함을 예고해주는 듯하다.
셋째, 산업 현실과 직결되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의 행정조직 개편 및 차관급 인사도 재벌개혁 및 산업구조 개편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고 있다. 조직개편은 실질적인 개편이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줄였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선에 그치고 있고, 통폐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던 국이나 과가 명칭만을 바꿔 살아남는 기기묘묘한 개편에 그치고 있다.
청장 인사는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회주의자 또는 출세지상주의자를 재임용 또는 승진기용함으로써 산업구조 개혁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차관 및 청장의 인선이 그러할진데 차관보나 실국장 인사가 개혁적인 색채를 띠기 어렵다는 것은 불가지상사가 아니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계와의 각종 연줄 및 비리 연결고리를 자르지 아니하고서 개혁을 추진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조직개편 및 장차관 인선으로 보아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산하 연구소 및 각종단체의 개혁은 이미 물건너간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정부 조직 및 인원, 예산의 3배에 달한다는 이들 산하 비선조직을 없애거나 대폭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 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의 생리를 아는 이들은 누구나 이구동성이라는 점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동반자로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되는 정도는 국민일반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꿰뚫어볼 때 가능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이 실패한 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한 정치적인 고려도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YS가 증명하지 않았던가…

IMF 시대의 「개혁」은 「안정」이나 「형평성」과는 양립되기 어렵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화학저널 1998/3/16>